

III. 세계 종교의 확산과 지역 문화의 발전

주제 20) 교황과 세속군주의 대립

학 교	
학 번	
이 름	

1. 교황의 등장

- 원래 ()교구의 수장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으나 자신이 그리스도 전체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서 서유럽 세계를 대표하는 종교 지도자로 지위를 가짐
- 당시 비잔티움 제국의 ()은(는)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종교 지도자인 동시에 과거 로마 제국 내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교황과 대립
- 하지만 800년 교황인 ()이(가) 프랑크 왕국의 카롤루스 대제에게 서로마 황제의 지위를 인정하면서 비잔티움 제국과 완전한 결별을 선언하며 서유럽 내에서 독자적인 영향력을 행사

2. 교회의 세속화와 교회의 개혁운동

1) 교회의 세속화

⇒

⇒

※ 위 내용의 빈 칸에 들어갈 그림을 아래에서 골라서 적절한 위치에 붙이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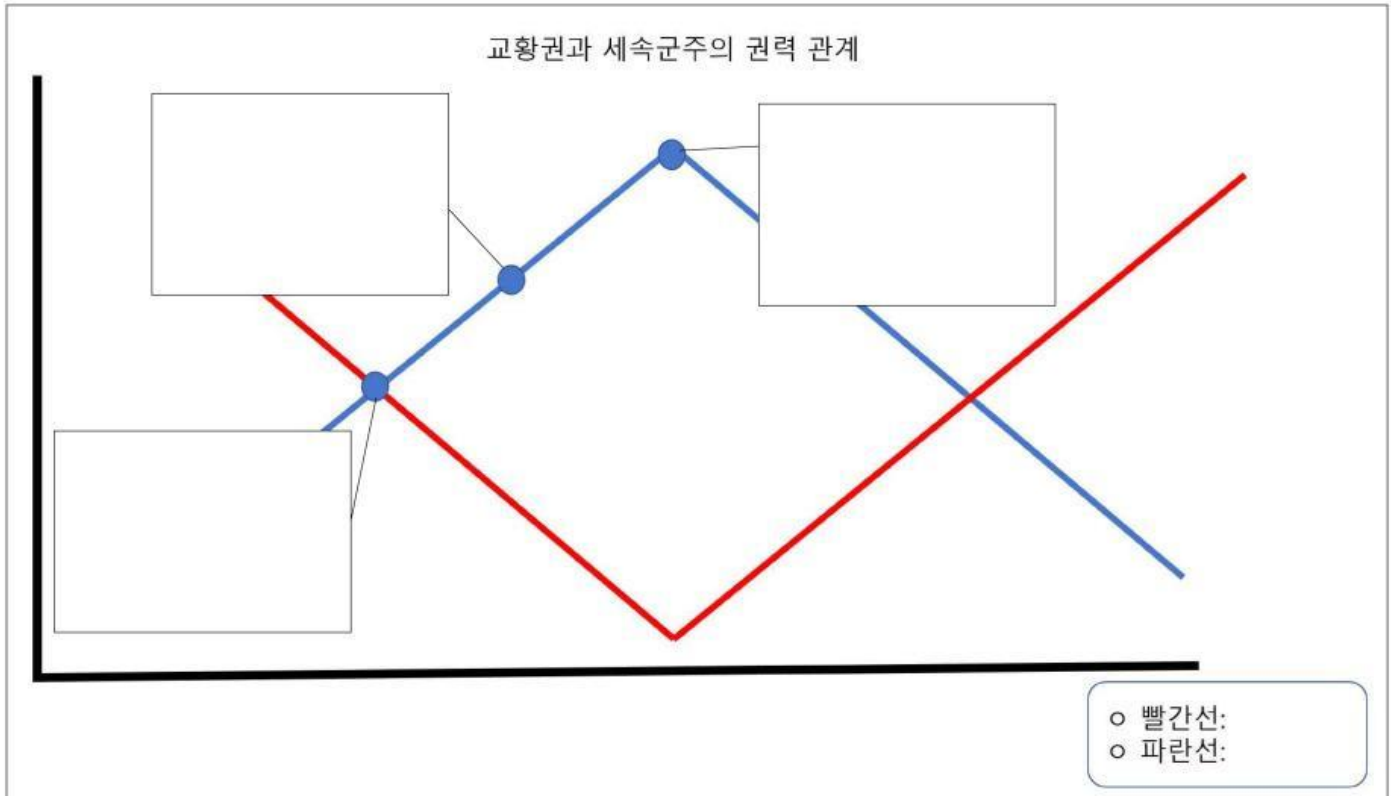


③ 교회의 세속화에 반대하여 교황을 중심으로 교회에 대한 개혁운동 실시



- 당시 청빈, 복종, 정결의 계율을 강조하는 ()운동 전개
- 성직 매매 (장려 / 폐지), 세속군주와 제후의 () 부정. (국왕/ 교황)의 절대권 인정
- 처음으로 클뤼니 ()에서 시작된 이러한 움직임이 확대되면서 교회의 영향력 확대

3. 교황권과 세속군주의 대립



※ 위 그래프의 빈 칸에 들어갈 그림을 아래에서 골라서 적절한 위치에 붙이시오.



	※ 다음 역사 자료를 시대순서대로 붙여봅시다.
↓	11세기 말 쾰프의 위협을 받은 비잔티움 제국의 구원 요청에 부응하여, 교황이 클레르몽 공의회에서 성지 예루살렘 회복을 위한 전쟁을 강력히 호소했고 교황은 "신의 뜻이다!"라는 구호와 함께 참전하는 자들에게 죄의 사면을 약속하며 종교적 열의를 끌어내는 십자군전쟁의 서막을 열었다.
↓	이 사건은 성직 임명권인 서임권을 두고 교황과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가 정면충돌한 사건으로, 황제가 파문이라는 정치적 위기 앞에 황제가 눈 속에서 맨발로 빌며 용서를 구한 이 장면은 교황권이 황제권을 압도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이들의 대립은 결국 1122년 보름스 협약을 통해 성직 임명권을 교황이 갖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13세기 교황은 "교황은 해, 황제는 달"이라는 비유를 통해 교황권이 세속의 권력보다 우위에 있음을 선언하여 교황권의 최전성기를 이뤘었다. 그는 강력한 파문권을 무기로 영국과 프랑스 국왕을 굴복시키면서 교회가 중세 유럽 사회의 명실상부한 최고 권위로 군림했던 시대였다.

1) ()



- ① 교황 ()와(과) 신성로마제국 황제인 하인리히 4세가 ()을(를) 두고 대립
- ② 이 과정에서 교황 ()은(는) 하인리히 4세를 파문하였고 파문당한 하인리히 4세에 대한 신성 로마 제국 내 제후와 주교들의 반발이 거세어지자 하인리히 4세가 카노사에 찾아가 교황에게 용서를 빌었음 ⇒ 교황이 파문을 철회
- ③ 이후 하인리히 4세는 로마로 진격하여 새로운 교황을 세우면서 교황에게 복수하는데 성공
- ④ ()과 관련된 논쟁은 12세기 초 보름스 협약을 통해 일단락

하느님의 종인 나, 교황 칼릭투스2세는 신성 로마 황제인 하인리히 5세에게 다음을 허용한다. 독일 왕국에 속하는 주교와 수도원장의 선출은 독일왕(또는 대리인)이 직접 참석한 자리에서 성직 매매 없이 또 교회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한다. 신성 로마 황제인 나, 하인리히 5세는 영적 권력에 의거한 모든 서임권을 성스러운 로마 가톨릭 교회에 양도한다. 독일 왕국과 신성 로마 제국에 속하는 모든 교회에서 교회법에 기초하여 성직자를 선출할 것과 자유롭게 서임하는 것을 승인한다.

⇒

2) ()의 발발

비잔티움 제국으로부터 절박한 구원 요청이 왔습니다. 동쪽에서 온 이슬람교도들이 우리 기독교 형제들을 공격하고 성지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 오랫동안 강도질을 일삼던 자들이여, 이제는 그리스도의 전사가 되십시오! 어제까지 형제와 친척을 상대로 싸우던 자들이여, 이제는 이교도를 상대로 정의로운 싸움을 시작하십시오! 이 거룩한 길에 나서는 이들에게는 현재의 고통 대신 천국의 영광과 모든 죄의 사면이 주어질 것입니다.

- ① 11세기 무렵 ()의 공격으로 인해 비잔티움 제국이 성지인 예루살렘을 상실
- ②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가 교황 ()에게 구원 요청
- ③ 교황은 유럽 각지의 국왕들에게 성지탈환과 이슬람 세력의 축출을 주장하며 전쟁에 참여하 것을 호소
- ④ 1097년에 전쟁 참여를 주장한 것을 시작으로 200여년간 이어짐

3) 교황권의 전성기 - ()의 활동

"하느님께서서는 하늘에 두 개의 큰 빛을 두셨으니, 더 큰 빛(해)은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더 작은 빛(달)은 밤을 다스리게 하셨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에는 두 개의 큰 권위가 있으니, 교황권은 낮(영혼)을, 황제권은 밤(육체)을 다스린다. 달이 해로부터 빛을 받듯이, 황제의 권력도 교황으로부터 나온다."

- ① 성직 임명 문제로 교황과 갈등하던 영국의 존왕을 파문시켜 그를 굴복시키고 영국으로부터 봉토를 약속받음
- ② 프랑스의 국왕 필리프 2세를 견제하며 프랑스 전체에 성무금지령을 내려 그를 굴복시킴
- ③ 제4차 십자군을 소집하여 동원, 라테란 공의회를 통해 교회의 교리와 규율을 재정비